

날짜: 5786 년, 9 월 28 일 (2025 년 12 월 18 일)

토라 문: Miketz (그 후에)

주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창세기 42 장 6 절과 창세기 44 장 18 절은 요셉 생애를 통한 기록을 통하여, 상대적인 양극점에서 하나의 구속을 이루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강요된 복종에서 자발적 자기책임으로 이동하는 티쿰 (수정·회복)”의 과정이 전개됩니다. 토라는 화해가 성급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화해는 반드시 변형된 도덕적 주체성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유대 종교의 랍비 전통과 나짜림 갱신서의 성찰은 서로 비록 다른 비유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은폐 → 각성 → 자발적 책임이라는 동일한 구조의 인식에서 결국은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42 장 6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로서 곡식을 파는 자가 되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베레쉬트 라바는 이 장면을 요셉의 꿈이 성취된 순간으로 규정하지만 (베레쉬트 라바 91:7), 동시에 그것이 아직 회복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형제들은 선택해서 절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두려움에 의해 굴복한 것이다. 그들은 진리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굴복했다. 미드라쉬의 표현대로, 꿈은 이루어졌으나 형제들은 아직 진정한 테슈바 (회개)로 돌아오지 않았다.

조하르는 이 절을 인식이 없는 복종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생명의 빛의 흐름의 통로인 *예소드 (Yesod / 반석;중생)*와 동일시되며, 이집트와 온 세상에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로 서 있다(조하르 I, 198a). 형제들은 그 자신들이 한때 끊어 버리려 했던 바로 그 영적 통로 아래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춘다. 그러나 예소드는 여전히 그들의 내면에서 깨어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 회개 없는 계시는 치유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붕괴를 낳기 때문이다 (조하르 I, 200b). 초자연적 신권의 흐름은 존재하지만, 진리는 그들의 내면에서 아직 가려져 있다.

이 전개의 구조는 갱신서의 영적 눈멀에 대한 기록의 언어와 깊은 동일성을 갖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 여호슈아는 반복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눅 8:10)는 이사야 6:9 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는 베레쉬트 라바가 말하는 핵심 곧, “인식은 주관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 라는 주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계시가 현존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요 1:10). 이 구절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각적 이유가 외적으로 위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마음 상태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미드라쉬적 통찰과 평행을 이룹니다.

탈무드는 왜 이야기가 창세기 42 장에서 끝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요마 86b 에서 유대교의 랍비들은 “완전한 회개”란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동일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다른 [더 숭고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의 오래 참으시는 속성하에 완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창세기 42 장 6 절은 아직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 있지만, 잘못에 대한 기억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절을 하지만, 심령의 도덕의 영으로 반듯이 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그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침묵은 잔혹함이 아니라 다가올 치유를 위한 절제입니다.

창세기 44 장 18 절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난다: “예후다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였다...” 베레쉬트 라바는 바이이가쉬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동사를 도덕적 용기의 움직임으로 해석합니다 (베레쉬트 라바 93:6). 예후다는 땅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 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42 장의 티쿰 (회개)입니다 – “굴복”은 “나아감으로 상승”하고, “두려움”은 “책임”으로 고무 됩니다.

조하르는 이 순간을 물리적 세상의 말쿠트 (Malchut:왕국) — 책임 있는 주권 — 가 예소드 (반석;중생) 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으로 설명합니다(조하르 I, 206a): 말쿠트가 “책임”을 인식하고 이 전의 비뚤어졌던 행위를 직시했을때에만, 예소드(반석;중생;승화)는 완전히 진리를 그 내면에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이 요셉이 유다의 진솔한 설명을 듣고 난 이후에야 자신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계시의 현현”은 “책임의 자각”이 바로 선 뒤에 따라 옵니다.

여기서 나짜림의 갱신서들은 유대 종교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분석을 대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평행적 동일성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2 장에서 바울은 자발적 낮아짐을 통해 드러나는 참된 권위를 가르치십니다. 유대종교와 나짜림 도 (행 24:5)의 가르침은 다른 각도로 다르게 보이지만, 그 내면의 도덕적 구조는 동일합니다. 곧, 권위는 강요된 압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책임 속성과 하나로 결합될 때 구속력을 발산됩니다.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예후다의 제안은 진리인 토라의 언약적 논리 안에서 바로 이 원리를 구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사도께서 “돌이킬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린도후서 3:16)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회개가 “계시의 조건”이라는 조하르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요셉의 정체는 창세기 42 장에서 가려지고 44 장 이후에 드러나는 이유는, 그 때에 가서야 나머지 형제들이 그 진리의 빛을 감당할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 장 6 절과 44 장 18 절, 이 두 구절을 함께 정독할 때, 완전한 도덕으로 일맥상통한 하나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42 장 6 절은 회개 없는 복종을 보여 줍니다: "그 때에 요셉이 그 땅의 총리가 되어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창 42:6) 창세기 44 장 18 절은 강요 없는 회개를 보여 줍니다: "아도니여, 당신의 종에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아도니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당신은 바로와 같으십니다." (창 44:18). 첫 구절은 육신을 땅에 굽히게 하고, 두 번째 구절은 영혼을 책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토라는 변함없이 확고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역사는 권력이 바뀔 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회복됩니다. 창세기 42 장은 침묵과 은폐로 질문을 던지며, 창세기 44 장은 발성된 말과 타인을 우선 긍휼히 여기는 자기 헌신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그때에야 요셉은 드디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때에야 진정한 형제됨이 다시 회복 된 것입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창 6:5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1-3